주거와 자아에 관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A Symbolic Interactive Approach to Housing and Self Relationship

김 행 신*
Kim, Haeng Shin

Abstract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symbolic interaction of housing and self identity. In terms of housing - self interactions, this paper aims at defining how human self is influenced by housing and is reflected on housing.

This paper discusses meanings and symbols of housing, it also clarifies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echnology have effect on housing - self indentity and enrich reification, pseudoindividuality, alienation.

This paper concludes that human beings are creative agent and accordingly suggests revitalizing housing environmental representations.

Ⅰ. 서 론

고도의 문화를 갖는 인간은 동물처럼 본능적·생물적인 이유에서 주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정 및 자아실현 등 상위차원의 정신적 욕구충족을 주거에서 추구한다. 그러므로 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이나 방과 같은 물리적 환경을 점유한다는 합리적·실용적 의미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세계내에서 확인하고 정립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과 행위를 의미하며(Bognar, 1985 : 189) 인간과 주어진 환경사이에 의미있는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을 내포한다(schulz, 1985 : 14). 그러므로 단순히 물리적 측면에서 주거를 이해하려는 시도나 주거-인간관계를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론적 시각 또는 별개의 이원론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는 인간자신이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나 상징을 간과함으로써 본질과 유리될 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 인간의 가치 지향이나 이해, 의미 및 경험세계의 문제를 통하여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주거의 연구도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단순한 容器이상의 사회심리적 구성물로서의 의미의 차원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실증주의적 접근으로만 규명될 수 없는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계적 세계관에 대한 가치이해적 세계관에의 각성이며 인간주의적 인식으로의 전환이다. 주거와 인간과의 의미에 중점을 둔 실존적 현상학적 접근등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주거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접근들은 대부분 주거공간의 문제를 사회와 분리시켜 개인적 차원에서 인식함으로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행

* 정회원, 제주대 가정관리학과 강사

위하는 행동공간으로서 그리고 인간 및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실체이며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주거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주거와 인간에 관한 심리적이고 심층적 측면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이론적 접근으로서 인간의 자아와 주거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재고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전제로 자아정체감에 있어서 주거의 의의와 자아표출의 제 양태를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단순히 환경의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창조적 힘을 가진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서 자아구현과 실현의 場으로서의 주거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주거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주거와 인간 사이의 심리적이고 심층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주거를 자아(self)의 상징으로서 본 Cooper를 시작으로 의미의 상징체계로서 그리고 자아의 확장으로서 주거를 파악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해져 공간 정체감(spatial - identity) · 장소 정체감(place - identity) 등의 개념을 사용한 구성환경(setting)과 자아의 관계를 다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인간에게는 인간을 그의 원초적 과거에 연결하는 보편적 또는 집합적 무의식이 있다는 Jung의 관점을 채택한 Cooper는 인간은 근본적 原型(Archetype)인 자아에 가시적 · 구체적인 실체를 부여하므로서 자아를 표상하기 위해 의미있는 상징물을 사용하는데 번번히 선택되는 것이 주거라고 하였다(Cooper, 1974). 그러나 Pratt등은 사회적 관계와 가치들이 고도로 개인적인 사회에서는 주거가 顯示를 위한 중요한 대상이 되나 사회적 관계나 가치들이 고도로 집합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을 표출하는데 있어 별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모든 시대나 모든 사회에서 주거가 자아의 상징은 아니며 사회구조(관계)의 표현이라고 본다(Pratt, 1982 : Duncan, 1982 : Hummon, 1989). Cooper는 보다 심층적이며 본질적인 자아의 표출로서 주거를 본 반면 Pratt등은 자기 顯示(display)의 대상물 즉 사회적 자아의 표출로서 주거를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자아를 본질적이며 불변적인 정적 특질로 보는 시각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동적인 특질로 보는 시각의 차이와 관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거와 인간 그리고 사회간의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자아이론의 발달에 현저한 공헌을 해왔고 사회심리적 접근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관점을 가지고 두 시각의 발전적 종합을 시도하고자 한다.

오늘날 인간과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결정론적 입장—행위자(인간)는 사회(구조)의 산물 내지 단순한 반영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파슨즈의 기능주의와 구조적 마르크스주의가 대표적이고 둘째, 인간주의적 입장—사회구조에 의해 결정된 객체가 아닌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인간을 핵심으로 하여 그 능동성과 창조성을 부각시키며 구조와의 결합을 시도하는 관점—으로 현상학, 민속방법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현대 사회심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사회심리적인 안목의 잇점과 효율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연구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구조 기능주의 · 형태론 · 그리고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반기를 들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인간주의적 방법론이다. 결정론적인 인간관 및 사회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인간의 내적측면, 인간과 다른 인간과의 상징적인 의미해석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 과정에 촛점을 두고 행위 형성을 연구하려고 하며 또한 인식하고 사고하는 주체와 외부세계를 구분하는 이원적 사고가 만들어 놓은 개인과 사회간의 개념적 장벽을 초월하여 개인과 사회는 불가분의 것이고 상호의존하고 있으므로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인 관련에

의해서 개인과 사회를 밝히려 한다(나인숙, 1982; 8).

'자아(self)'는 인간의 행동방식을 설명하거나 예견하는데 그 이론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정의되기가 매우 어렵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자아(self)[1]를 인간이 사회 집단속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의미있는 상징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즉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으로 I와 Me라고 하는 분석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두 측면사이의 변증법적이고 역동적인 상호과정으로 본다. I는 개인의 충동적인 것·본질적인 것·주관적인 것이고, 반면에 Me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으로서 I를 조정하게 하는 것인데,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s)가 내면화 한 것을 가리켜 자아가 충분히 발달하였다고 한다(Mead, 1962 : 135).

그러나 자아는 인간존재의 근본적이고 영속적이며 독특하고 조직화된 비교적 안정된 특질로 자아를 보는 시각에서부터 자신의 사고·정서·행위를 인도하고 조절하는 動因(agent) 또는 능동적 과정으로 존재론적 위치를 부여받아 왔다(Tedeschi, 1986 : 4). 즉 역동적인 체계로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속에서 발달해가는 것이라는 견해엔 많은 일치를 보이고 있다.

1) 자아(self)는 자아 자기자신(ego self), 자아정체감(self - identity), 자기평가(self - evaluation), 자아상(self - image), 자아 존중감(self - esteem)등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개념규정이 어렵다. 자아(self)는 자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총체로서 대체로 자아상·자기평가·자아존중감등은 자아의 부분개념 내지 부분구조(substructure)로 규정되고 있고, 자아 정체감은 자아와 동일한 것에 대한 실제적 또는 상징적인 對人的 일치를 통해 형성되고 유지된 핵심(core)을 이루는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자아를 자아정체감(self - identity)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문맥에 따라 identity를 정체성, 정체감, 정체등으로 번역하였다.

결국 인간은 늘 자기를 형성해가는 존재이고 완성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 역동적인 존재로 환경에 영향을 가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상호작용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주거 역시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와 관념내에서 형성된 역동적 자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다시 주거는 거주자에게 자기동일감 및 행동기회의 창출과 사회적 정체감을 부여함으로서 자아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을 계속한다. 이런 의미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은 주거와 자아관계의 규명에 적절한 개념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록 본다.

2.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상징체로서의 주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은 의미와 상징을 배우며 그것을 바탕으로 행위하고 상호작용하므로 (김진균, 1986 ; 382) 공유된 의미체계인 상징이 없다면 사회생활은 불가능하다. 즉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인간으로서의 실존 그 자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상징을 만들고 공유하며 사용하는 인간의 능력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세계속에서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Mead는 인간사회의 특징을 동물사회의 단순한 협력을 벗어난 조정된 행위(concerted action) 즉 타자의 의도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외부에 표출한다는 것에 두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상호작용에 참가하는 성원들이 공통의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주위의 대상에 대해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동일한 의미를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s)와 성찰적 지성을 소유함으로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존재로, 생물학적 유기체로 태어난 인간이 본능에 따라 움직이다가 차츰 자기가 속한 사회의 공유된 의미체계를 습득하고 내면화하여 일상적 기준에 적합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원철, 1988 ; 19).

의사전달은 공유된 상징 의미체계인 언어 그리고 비언어적 메카니즘이 있으며 Sarles는 우리가 비언어적이라 부르는 의사전달의 사회문맥적인 면은 재빨리 전달되고 '가장 목소리가 크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했고 그런 매개중의 하나는 건조환경이라 했다(이영, 1990 ; 47). 건조환경중에서도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거는 비 언어적 의사전달의 매개체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대상물 가운데 하나이다.

원시 문화에 있어 주거는 그 자체가 우주의 일부, 소우주였다. 물질적 진보 이전에 주거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자연과 일체를 이루고 있었고 인간은 자신의 존재 중심이며 삶의 뿌리인 주거에서 우주를 포용하며 거대한 우주와 자연의 현상과 신비를 상징적으로 주거에 담았다. 즉, 전사회적(presocial) 인간의 세계에서 사물과 공간들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 있었다. 그러나 자연상태에 있던 공간이 인간의지의 작용을 통해 일단 분화되고 정의되어지면 단순한 물리적인 것이 되기를 그만두고 문화적 대상물로 전환된다(Jeong - Keun Lee, 1984 : 82). 이리하여 주거와 주거내 구성물들은 문화화의 과정을 통해 문화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의된 어떤 특질을 수반하는 의미와 상징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거가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는 시대에 따라 또는 동일한 시대라 할지라도 사람들에 따라 그 의미와 중요도가 다르다.

Duncan의 연구에 따르면 집합적인 사회구조에서의 주택은 확대가족을 위한 容器이며 단지 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만을 지니나, 개인주의적 사회구조에서는 유일하고 중요한 소비재일뿐만 아니라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대상물(objects)인 것으로 나타났다(1982 ; 36). Csikszentmihalyi & Rochberg - Halton은 우리자신에 관한 기본적 정보는 여러가지 대상물들을 사용함에 의해 전달되며 소위 문명화된 사람들은 더욱 다양한 대상들을 사용한다(1984 ; 92)고 하였다. 인간은 존재의 모든 양식에 있어 자신의 특유성을 위해 노력하며 그러한 수단으로 많은 대상물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자신을 대상물에 반영함으로써 자신을 확인하고 또한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Lang은 가구, 건물배치(building layout)스타일과 전경(landscape)디자인 등은 자기자신, 그들의 사회적 배경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세계관에 관한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언어적 메카니즘이라 했다(Lang, 1987 : 205). 그것이 관례적으로 대변하는 것 또는 사람들이 그 상징의 대상물로서 공통으로 인식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의미와 상징은 정신과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최재현, 1985 ; 298) 의미와 상징은 상황에 대한 해석에 근거해 수정 변경되기도 한다.

자아표출(self - presentation)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항상 한 요인이어왔고 자아표출에 의해 인간은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창조한다(Harré, 1984 : 257).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욕구는 물리적인 것으로서 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메카니즘을 통해 채워지는 것이며 주거는 문화를 통해 이러한 욕구가 구현된 중요한 자아 표출체이다. 즉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들은 공유된 상징체계로서의 주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체와 이미지를 세우고 유지하고 고양시키는 자아표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의 많은 삶의 장소중에서 특히 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는 비교적 영속적이며 쉽게 변하지 않는 장소로 자아 표출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구성환경이나 주거는 단순히 우리의 자아가 투영되거나 표출되는 구조체만은 아니며 우리의 자아정체감에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체이다. 자아표출행위의 집적은 역으로 정체감을 강화하거나 수정하며 이러하여 상호 피이드 백이 이루어진다.

일단 인간에 의해 형성된 주거는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하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주거가 사회적 지위

의 상징이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을 구분짓는 중요한 表識일지라도 삶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삶을 결합하며, 어떤 것들과의 일련의 밀접하고 안정된 관계를 맺는 근거지로서 거기에서 비롯된 심리적 유대를 통해 우리의 행동과 가치관을 통제하게 된다. 또한 주거에서의 자기 확인(self-identification)을 통해 정체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정체감에 관계된 문화적 가치들을 반영하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우리가 영위하는 생활에서 많은 대상(objects)은 우리자신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문화라는 토대위에서 이루어진다. 사회는 그릇이요, 문화는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로서 문화의 가치는 주거를 통해 삶의 유형 또는 생활양식으로서 우리에게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주거는 문화적 정체를 전달하는 대상인 것이다. Rapoport는 많은 경우에 인간의 건조환경을 파괴함으로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감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1982; 6)고 했는데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이처럼 주거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관념의 대상이자 표현체로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정체를 규정하며 자아표출(self-presentation)측면에 있어서도 자기 창조적·실현적 면이 변증법적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다.

3. 사회의 변화와 주거의 物化

오늘날의 사회는 익명성, 사회적·지리적 이동의 높은 비율, 사회집단의 개방성 및 전통적 규범의 붕괴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생활환경의 변화 특히 대도시의 발달의 결과로서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이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관계와 가치에 있어서 더 큰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의 증가라는 조건하에서는 전통사회에서와 같은 공유된 신비나 응집력이 매우 약화되고 자신을 드러낼 집합적 표시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적 대상물을 통해 자아표출을 시도하게 된다. 특히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이 대상물에 대해 인간은 특히 매우 의존적이며 자아표출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되어 간다.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주거는 가정의 내밀화(privatisation)를 수정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외부인에게 내밀한 개인의 세계를 개방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주의적 집단은 아이러니칼하게도 더 사적인 생활과 더 공적인 주거로 특징지어 지는데 이는 정체감이 대상물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며 따라서 주거의 내밀화는 자신의 사적인 정체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깨뜨려진다. 개인주의 사회나 집단에서 여성의 사적 영역인 주거는 파괴되었으며 더 공적으로 되어가는(외부인들이 더 허락되어진다는 의미에서) 그러면서도 가족내에서 프라이버시가 강조되고 있는 현상도 사회의 핵심적 구조관계의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 질 수 있다(Duncan, 1982 : 51).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거나 세계를 위협적·적대적·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길 때 주거를 그에 대한 요새 또는 보호막으로 간주하여 그것을 방패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진다. 거대하고 조밀한 복잡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을 조각내고 그런 다음 한 조각속으로 움추리는것(withdrawing)이므로 (Johnston, 1989 : 239) 개인주의적 극을 향해 가속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통제 너머에 있는 외적변화는 개인들로 하여금 더욱 개인적으로 되게 함으로써—더욱 개별적이고 사적인 주거를 구성하여 독특한 개인적 자아를 강조하므로서—대응하려 한다.

이것은 결국 공동체적 영역의 파괴, 극단적인 폐쇄성에 기초한 개인주의적 생활공간을 초래하였고 실제로는 접촉회피 및 고립을 낳았다. 이것이 Halton이 말하는 "유사 개인성(pseudo-individuality)"으로 전통적 규범과 결속력의 붕괴, 극단적 분화 및 정서적 생활의 결여에서 비롯한 개인 또는 개체에 대한 맹목적

강조의 결과이며 주거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시적인 구성, 매너리즘과 상투적 스타일을 낳았다.

끊임없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는 상징을 점차 "탈 신비화" "세속화"하기에 이르렀고 물질과 테크놀로지는 주거에 있어서 중요한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자아표출을 위해 종종 선택되는 중요한 대상물로 크고 지속적이며 사적 대상물인 주거는 이제 더 이상 인간 생활의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며, 전형적이고 익명적인 방식으로 타인 또는 자기 자신을 특정짓도록 기여한다. 즉 대상물로서 주거자체에만 가치를 부여하려 할 뿐 자신이 이것을 창조해간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데 국한할 따름인 物化(reification)되고 말았으며 物化된 주거는 인간을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머물러 있게 한다.

특히 현대 도시문화는 주관적 문화의 빈곤을 야기시키고 허위의 고립된 개인성을 자극하여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자 하면서 타인에게 전형화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집합적 가치를 지닌 전통 사회에서는 집합적 표상을 통해 자신의 입증(identification)이 용이했으나 이질적이고 극도로 분화된 현대 사회는 자신과 타인 양쪽 모두 동일화의 문제를 증가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집단 동일시(group identification)를 통해 자아 동일감 (self-identification)을 발견한다(Johnston, 1989:240). 상징은 현재의 자신에 대한 지각, 또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하는 열망, 또는 과거의 자신에 대한 부인을 반영하며 사회적 이동을 겪는 사람들(mobile people)은 집단과 결부된 상징들을 반영하려 한다. 우리가 집단의 완전한—사회경제적, 문화적, 인종적으로—구성원이라면 멤버쉽은 덜 중요하고 선택된 것들은 퍼스낼리티, 또는 다른 특이성을 반영하기 쉽다(Sarles, 1969).

준거가 우리 전통사회에서처럼 귀속적 신분에 의해 강화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하에서 고립되고 분열된 개인들은 고정관념화되고 物化된 표상으로서 가시적이고 외적으로 용이하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주거 및 주거환경 특징의 동질성을 통해 집단 동일시를 얻는다. 주거에서 나타나는 단적인 예가 대도시 지역의 거주지 분화로서, 동일한 사회경제적 속성을 가진 가구(household)들이 집합화된 아파트 단지의 계층적 분화가 세부적 예이다. 동질적 속성들이 집합화한 아파트는 기능성, 편리성등의 선호요인외에도 속성들이 쉽게 식별되고 그에 의한 이미지 때문에 단지화한 아파트는 집단 동일시를 부여하고 그것을 강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단지내에서도 규모별로 역시 그런 현상이 발생하며 비단 아파트라는 집합 주거 이외에도 사회계층에 따른 주거지 분리는 계층적 분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며 이런 분리 내지 분화는 특별한 집합적 의지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홍두승과 김미회의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의 공간 재배치과정은 계층간 혼재에서 계층간 분리로 특정 지워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분리현상은 70년대 중반 이후의 아파트건설붐을 타고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 특히 중산층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집락을 이루면서 중산층과 비중산층 간에는 아예 물리적인 분리가 이루어지고 각 계층의 생활공간이 별개로 마련되어 나가므로서, 개인의 이해와 얽혀있는 개인주의적 의식과 생활양식의 한 집합적 유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홍두승, 김미회, 1988;517~518). 특히 상류층이나 하위층과는 달리 사회적 상향 이동의 가능성이 있는 중산층의 경우는 집단 동일시를 통한 자기 표출에의 요구가 강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정서적 유대나 통합에 의하지 않은 이런 집단 동일시는 집합주의적 전통사회에서의 집단 동일시와는 달리 대립과 갈등을 내재하고 있으며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한다. 지나친 지위추구적 의식이 物化된 양식으로 나타날 때 이미 주거는 더 이상 주거일 수 없으며, 결속력이나 응집력을 상실한 현대사회의 고립되고 와해된 중심성을 잃어버린 자아의 결과이다. 이처럼 物化되고 분열되고 고립된 현재의 주거상—동시에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기도 한—때문에

아이러니칼하게도 현대사회에 있어 주거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4.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주거의 심리적 함의 (含意)

質的인 의미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인간성(humanity)의 기본적 조건이다. 우리가 장소로 우리의 정체를 밝힐 때, 우리는 세계-내-존재의 한 방식에 우리를 맡긴다. 그리하여 주거는 우리의 장소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 어떤것을 요구한다. 결국 우리의 집은 우리 정체성의 부분이며 우리의 존재를 조건 짓는다. 주택은 환경속에 건축적 향상으로서 있으면서, 우리의 정체를 굳혀주고 안정성을 제공한다(schulz, 1985 : 13). 집이 없다면 인간의 존재는 산산히 흩어져 버릴 것이다. 집은 하늘의 뇌우와 삶의 뇌우들을 거치면서도 인간을 붙잡아 준다. 그것은 육체이자 영혼이며, 인간 존재의 최초의 세계이고 그것은 존재를 보호하는 그것은 경계선 안에 존재를 응축한다(Bachelard, 1990 : 118).

우리들의 오랜 머무름 즉 생활시간의 경과와 축적에 의해 견고해진 지속의 結晶들을 발견하는 것은 주거에 의해 주거공간의 가운데서이며 그러므로 주거의 경험은 인간의 자아를 규정하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게된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의 全환경은 어머니이나 점차적으로 감각들의 범위가 팽창함에 따라 환경을 지각하기 시작하며 최초로 인식된 의식적 장소로서의 집은 그의 세계 바로 그의 우주가 된다. 수동적인 감각체로서의 유아는 신체를 사용하여 움직이면서 이 최초의 의식된 환경-주거-에서 부터 자신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운다. 자아는 환경에 대한 의도적 반응으로 성장하며 유아는 이 최초의 환경에서 자신에 관한 작은 정보를 가지고 생을 출발한다.

그가 성숙함에 따라서 그는 더 큰 세계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며 그에 따라 주거공간은 그의 세계의 일부가 되어가나 자아의 형성에 있어 주거경험의 기여는 여전히 중요하며 삶의 과정동안 계속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자아감의 형성에 있어서 주요한 발달단계가 세계로부터의 어린이의 분리를 포함한다면 다음단계는 의미심장한 부분을 구성하는 세계에서의 정체감의 발달을 포함하며 그에 대한 장소의 기여는 의미심장하다(Rivlin, 1987 : 10).

거주자 각각의 자아와 풀 수 없게 얽혀있는 집은 집이라는 주거공간을 매개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성 분리(sex segregation) 그리고 거기에서 결과되는 성 정체감의 강화라는 또 하나의 미묘한 측면이 있다. 집은 특히 여성의 장소로써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져 왔고 남성과는 상이하게 여성은 이 '집'이라는 장소와 밀접히 관련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이 '집'과 관련된 그리고 집에 한정된 여성의 역할은 여성의 성 정체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Hummon은 여성은 전통적으로 가정내 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정으로 가정에 있게 되었을 뿐아니라 가정생활의 실제적·상징적 활동을 통해서 여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감을 실현시키는 것이 증가되었다고 보았다(1989 ; 216). Csikszentmihalyi와 Rochberg·Halton (1981)은 가정 구성물(domestic objects)에 쏟은 정서적 의미의 양과 가족 생활의 정서적 색조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했는데 가정내의 환경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가족들은 또한 관계를 맺는 스타일에 있어서 더 따뜻하고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Hummon은 여성들은 남성보다 집을 자아표현과 자아투사의 통로로서 정의하기 쉬우며, 또한 주거에 있어 자아의 더 큰 정서적 의미 부여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1989 ; 216). 따라서 주거에 있어 개인의 특질이나 개성표현 및 창조 그리고 정서적 투여와 만족이라고 본질적이고 자기인식적인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 안될 것이다. 거주장소와 관련된 성 정체감은 성 분리의 관행과 결부되어 나타나는데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가 되어갈수록 전통적 성 역할은 점차 와해되므로 공간과 연계된 성 역할과 성 정체감의 관련은 약화되

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개인들은 물리적·사회적 공간에서 정체감을 가진 장소(집)의 매개를 통해 존재하게된다. 정체감의 자라남은 정적인 자아 이미지(self-image)의 반영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역동적이며 실제로 능동적으로 靜的인 상태에 저항한다(Dovey, 1986;43). 구성된 주거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정체감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자신만의 어떤 것을 공간의 물리적 조직속으로 짜넣는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이 역동성을 볼 수 있으며, 자아를 표출하기 위한 주거의 상징적 사용은 시대적 사회문화적 변이가 있으나 자아본질의 노출임이 명백하다. 정체성은 주거와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고유성과 독자성이 주거에 반영되는 것과, 구성된 주거환경이 인간에게 전달하고 부여하는 두가지의 측면이 있는것이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자신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도 다른 한 사람 즉 제2의 자기는 언제나 그곳에 있다고 여긴다. 인간은 자기의 거주공간을 하나의 외적인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종속된 것이고 자기 자신의 한 부분으로 느낀다. 그러므로 주거에 있어서야 말로 인간은 자기의 정체를 발견한다(홍형옥, 1982, 131-132).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주거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그 장소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주공간에 대해 소외되지 않는 느낌을 갖게되며 이러한 느낌이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다른것에서 부터 하나의 집을 구분짓고 또 그 소유자의 퍼스낼리티를 표현하는 특질로서의 표현적·상징적 의미는 지극히 중요하며, 자기세계에서 자기 존재를 의식하고 그 세계에 자기를 투입시켜 일치하게 하며 자신의 환경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Ⅲ. 결 론

주거는 사회문화적 산물이므로 사회와 분리해서 주거를 생각할 수 없다. 주거공간은 인간의 의식이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영역이며 생활속에서 반복되는 체험은 그것에 상응하는 의식과 사회행동을 산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커다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테크놀로지 사회로의 진입과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로의 변화등은 주거와 인간과의 사이에 큰 변화를 초래-주거는 物化되었고, 주거의 物化는 자아표출에 있어서 지나친 과시나 지위추구의 형태로 나타나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일치 공감되는 주거를 상실하여 친숙하고 안온한 주거에서 소외되고 있다. 장소성의 부재 또는 주거부재(homeless)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현상 역시 동일한 연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는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모든 면을 포괄하고 사회, 문화적 맥락속에서 인간의 자아를 표출 내지 상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인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이다. 인간은 사회속에서 문화에 의하여 영향받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단순하게 밀려가거나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반응하는 세계의 능동적 창조자이며 주거는 동질적 분화와 분리 그리고 개인성의 창출과 고양 및 정서적 안정과 내적 응집력 확립의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면서 일상의 활동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주를 창조해 내는 것으로 보인다. 즉 주거는 분화뿐만이 아니라 통합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분열되고 고립된 사회에서 인간들을 결속시켜 줄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래의 주거상의 정립에 있어서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의 역할의 강조와 새로운 통합을 위한 주거에 있어서의 의미와 상징 창출에 대한 가능성이 남겨져 있으며 인간의 부조리성, 불확정성 및 사회적 복합성등에 대한 자각으로 획일적이고 전형적인 집단적 표상으로 부터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한 근린사회의 결속 및 통합 그리고 개인성과 지역성을 적절히 표현할 표상등의 모색이 요구되어진다.

사회문화는 잠정적이고 끊임없이 변동하는 것으

로 이에 대응하는 인간의 상호작용 역시 구성적이고 변동가능하므로 사회심리적인 차원에서의 탐구와 분석으로서 미래의 새로운 주거상의 지평을 열 수 있으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1. Bognar, B.(1985) A Phenomenlolgical Approach to Architecture and its Teaching. in the Design studio; in D. Seamon & R. Mungerauer(eds), Dwelling, place and Environment, Mainnus Nijoff pub.
2. Cooper, C.(1974) The House as symbol of the self; in Joan Lang et al(eds.), Design for Human Behavior, Stroudburg; Down Hutchinson & Ross, Inc.
3. Csikszentmihalyi, M. & Rochberg-Halton.(1981) The meanings of th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4. Dovey, K.(1985) Home and Homeless; in Altman & wener(eds.), Home Environment, plenum press.
5. Duncan, J.S.(1982) From container of women to status symbol; the Impact of Social structure on the Meaning of the House. in J.S. Duncan(ed.), Housing and Identity.
6. Harré, R.(1984) Personal Being, Harvard University Press.
7. Hummon, M.(1989) House, Home, and Identity in Contemporary American Culture. in Low & chermer(eds.), Housing, Culture and Design; University of penn sylvania press.
8. Jeang-Keun Lee,(1982) Space & Socie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Edinburgr, PH. D.
9. Johnstone, R.J.(1989) People and Places in the behavioural Environment. in W. Boal and David N. Livingstone(eds.), The Behavioural Environment, Routledge pub.
10. Pratt, G.(1982) The House as and Expression of social worlds. in J.S. Duncan(ed.), Housing & Identity.
11. Lang, J.(1987)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Nostard Reinhold Company Inc.
12. Mead, G.H.(1962)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Press.
13. Rapoport, A.(1985) Identity and Environment;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J.S. Duncan(ed.), Housing and Identity, N.Y; Holmes & meier pub.
14. Rivlin, L.G.(1983) The Neighborhood, Personal identity and Group afflication. in Altman & Wandersman(eds.), Neighborhood & Community Environment, Plenum press.
15. Sarles, H. 이영 역(1990) 건조환경의 의미, 삼간연구회, 태림 출판사.
16. Schulz, C.N.(1985) The Concept of Dwelling. N.Y;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17. Tedeschi, J.J.(1986) Private and Public experience and self. in R.F. Baumeister,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Springer-verlag.
18. Tuner, J.H. 김진균 역(1986) 사회학 이론의 구조, 한길사.
19. (Bachelards저) 곽광수 역,(1990) 공간의 시학, 이데아 출판사.
20. 나인숙(1984)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인간관, 경북대, 석사논문.
21. 이원철(1982) 물화된 실재와 자유에 관한 연극론적 사회학과 현상학적 사회학의 비교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2. 홍형옥(1982) 주거의 인간학적인 의미, 대한가정학회지, 20권 2호.
23. 홍두승 김미희(1988) 중산층의 생활 양식—주거생활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제8집.